



북청소년축구팀-연세대 연습경기 북청 청소년축구대표팀과 연세대학교 축구팀(파란색)이 26일 오후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연습경기를 가진 가운데 양측 선수가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 2승 현대캐피탈 '챔프 굳히기' VS '벼랑 끝 탈출'

2006~2007 프로배구 남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에서 2연승에 챔피언타이를 방어해 1승만을 남겨둔 현대캐피탈과 안방에서 2패를 당해 벼랑 끝에 몰린 삼성화재가 2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재결한다. 지금까지는 8부 능선을 넘어선 현대가 절대 유리하다.

현대에는 정규리그 우승을 놓쳐 챔피언전에 직행하지 못했지만 대한항공과 플레이오프를 2전 전승으로 통과한 뒤 챔피언전에서도 먼저 2승을 거둬 포스트시즌 4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규시즌에서 삼성에 3게임을 내리 잃은 뒤 3연승하고 다시 챔피언결정전 2차전

##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내일 남자부 3차전 열려

까지 승리, 파죽의 5연승을 달리고 있다. 현대는 비교우위에 있는 높이에다 견고한 방패가 장점. '거미손' 이선규와 윤봉우, 하경민이 포진한 철벽 센터진은 블로킹과 중앙속공으로 1, 2차전 승리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블로킹 득점을 보더라도 현대가 챔피언 1차전 15-3으로 압도했고, 2차전 역시 14-7로 크게 앞섰다. 30대가 주축인 삼성의 무더진 차이 현대의 두터운 방패를 뚫기

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현대는 공격력이 살아난 용병 손투니가 1차전 20득점에 이어 2차전 24득점으로 상대 코트를 허물었고 2차전 61.29%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과시했다.

2연패를 당해 배수의 진을 친 삼성도 3전 전패로 우승컵을 내주지 않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괴물' 용병 레안드로 다 실바는 삼성에 3차전 승리를 안겨줄 희망이다. 레안드로는 공격 루트가 상대 수비수들에게 얽혀 고전했지만 208cm 장신을 스파이크는 여전히 위협적이어서 제 컨디션만 찾으면 현대의 방패를 허물 것으로 기대된다.

# 우즈벡 꺾고 원정 상승기류 탄다

## 올림픽 축구대표팀 28일 지역예선 3차전 양동현-한동원 최전방 공격수 기용될 듯

핍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2008 베이징 올림픽 올림픽 축구 2차 예선 3차전 우즈베키스탄과 홈 경기(28일 오후 8시·안산 와스타디움)를 앞두고 최종예선 진출의 교두보를 쌓기 위한 힘찬 결의를 다지고 나섰다.

지난 달 28일 예선과 1차전에서 답답한 공격 전개로 1-0 신승을 거뒀던 한국은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정경기에서 시원한 3-1 승리를 거두면서 공격 축구에 불꽃을 틔웠다.

박주영이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한 뒤 '공격

진 공격'이 예상됐지만 한동원(서울)과 이승현(부산)이 골 사냥에 나서면서 베어백 감독의 공격 전술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2차 예선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4골(1실점)을 뽑아낸 한국은 역시 2승을 거둔 우즈베키스탄(3득1실)을 골득실에서 앞서며 F조에서 박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베어백 감독은 2차 예선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기분 좋은 3연승을 거둬 상승세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나면 2차례 원

정경기를 떠나야 하는 만큼 홈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25일 첫 소집훈련에 나선 베어백 감독은 강한 자신감에 차있다. 주말에 K-리그 경기가 없어 소집 첫날부터 하루 두 차례 훈련을 하는 등 충분한 훈련시간을 확보해서다.

우즈베키스탄은 FIFA 랭킹 53위로 한국(48위)에 이어 '아시아 5강'을 이루고 있는 강팀이다. 역대전적(A대표팀)에서는 한국이 3승1무1패로 앞서고 있다.

베어백 감독은 지난 UAE전에서 기용했던 양동현(울산)을 원톱으로 한동원을 세도 스트라이커로 내세운 베스트 11을 또 한번 가동할 공산이 크다.

백지훈(서울)-오장은(울산)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수비의 축으로 삼고 이근호(대구)와 이승현의 빠른 좌우 침투를 통한 크로스가 주요 득점루트가 될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서재응 첫 승, 추신수 홈런포

### 미프로야구 시범경기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투수 중 유일하게 선발을 보장 받은 서재응(30·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시범경기 첫 승을 기록했고, 클리블랜드의 추신수(25)는 첫 홈런포를 터트렸다.

서재응은 26일 플로리다주 브레이크턴 메카니칼에서 벌어진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5안타와 2볼넷을 허용했지만 2실점으로 상대 공격을 틀어 막는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실점 이내 투구)를 펼쳐며 시범 경기 첫 승을 신고했다.

삼진은 5개를 누웠고, 평균자책점은 1.00에서 약간 높아진 1.69를 유지했다. 추신수도 이날 플로리다주 베로비치 홈스테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시범경기에서 좌익수 겸 6번타자로 선발출장, 1-2로 뒤진 8회 초 상대 투수 루디 시아네즈로부터 2점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3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한편 1996년 이후 11년 만에 불펜투수로 뛰게 된 미국프로야구 박찬호(33·뉴욕 메츠)는 롱 릴리프가 아닌 '셋업맨'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메츠 홈페이는 이날 박찬호가 롱 릴리프와 임시 선발이 가능한 '스윙 맨'이 아닌 마무리 투수 앞에 나와 1이닝을 소화하는 셋업맨으로 기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교육청 육상 중심학교 22개교 운영

전남도교육청은 공부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밝은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기본종목(육상) 중심학교 22개교를 운영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본종목(육상) 중심학교는 22개 지역교육청에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 전교생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효율적인 기본종목 중심학교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에 26명의 전문체육교사 배치와 함께 운영비 6천6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7개영역 13개 과제평가 항목을 설정해 평가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함께 교육감 표창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본종목(육상) 중심학교 운영을 통해 조기 발굴된 우수선수들이 각종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의 성과를 거뒀으며 도대표선수 육상 21명, 우수선수 333명을 확보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종목 중심학교 운영을 통해 평생체육 기틀을 조성하고, 체육영재 발굴과 진로지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수원컵 국제청소년 축구(한국-칠레)(18:40·KBS2) 28일(수)
  - ▲MLB 시범경기(뉴욕Y-미네소타)(01:55·Xports)
  - 27일(화)
  - ▲프로야구 시범경기(롯데-KIA)(12:50·SBS스포츠·MBC ESPN), (삼성-현대)(13:00·KBSN SPORTS)
  - ▲세계수영선수권 대회(13:30·KBS2)
  - ▲제2회 3.15기반 전국태권도대회(16:30·KBSN SPORTS)
  -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P03 차전(우리은행-삼성생명)(16:50·SBS스포츠)
- “비너스를 이겼다” ▶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26일 플로리다주 키 비스케이에서 벌어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소니 에릭슨 오픈 단식 3회전에서 미국의 비너스 윌리엄스를 물리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말레오” 원격외선 **집에 난방이 혁명적입니다.**

▶ **에너지 절약 효과 극대화**  
말레오 원격외선 난방은 기존 난방 방식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 질 개선**  
말레오 원격외선 난방은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장수 수명**  
말레오 원격외선 난방은 내구성이 뛰어나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가 간편합니다.

▶ **안전성**  
말레오 원격외선 난방은 화재 위험이 없고, 안전합니다.

▶ **디자인**  
말레오 원격외선 난방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어울립니다.

▶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TEL. (062)282-0101

**전일자동차용품백화점**

각종 차량 상품 전장품 특가 판매!!!

전일자동차용품백화점 TEL. 387, 5779

전일자동차용품백화점 TEL. 387, 5788